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이종윤
Lee, Jong Yun, Ph. D., D.D., D. D.설교목사
Preaching Pastor박노철
Park, No Cheol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Gift Set of God)

■ 시편 139:13~18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궁극적인 소원은 우리의 행복입니다(렘32:41).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행복해야 하는 특권과 의무와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사회에서, 교회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참으로 고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고단함을 넘겨 극복할 수 있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시139:13-16). 오늘 본문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139:13) 하나님이 우리의 생물학적 기질과 우리의 내면적 기질을 손수 짜서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옵아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시139:14)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원뿔꼴 하게 또한 경이롭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시139:15-16)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수를 놓아 만드신 경이로운 정도로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렇게 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 창조주 하나님은 매우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 내셨습니다.

이 설명말고는 아무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성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재주가 다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각 사람의 성향과 소질을 확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너무도 중요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삶은 첫째, 그 어떤 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며, 그리고 둘째,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셋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삶입니다. 이 세가운데 가장 불행한 삶은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삶”입니다. 불행한 삶은 “좋아하는 데에 잘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삶”입니다. 자기는 그 일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것도 불행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2.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완벽하게 준비시켜서 세상에 내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과 숙제를 아시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도구들을 다 챙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찬찬히 풀어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 보따리가 너무 커서 한꺼번에 못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기질을 알면 행복이 보인다”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을 어떤 기질로 만드셨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드려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가정들은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맺는 말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 주실 때 함께 싸 주셨던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선물 보따리를 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나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Ⅱ,Ⅲ,Ⅳ층
		분 반 공 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Ⅱ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Ⅲ부	(경배와찬양) 청 년 예 배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Ⅲ,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5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Ⅱ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Ⅰ 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년부	Ⅰ 부 (30대)	오전10시/오후3시30분 401호/702호
유아부(13개월-4세)	Ⅱ 부 오전11시20분	유아부 706호		Ⅱ 부 (40대)	오전10시 301호
	Ⅲ 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Ⅲ부 (50대)	오전10시 401호
유치부(5세-7세)				Ⅳ부 (60대)	오전10시 301호
				Ⅴ부(70대이상)	오전10시 603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호	에바다부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호		Ⅰ 부	오전11시20분 본당
중 등 부	오전 10시	501호		Ⅱ 부	오후2시 603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호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호	새가족부	Ⅰ 부	오전10시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603, 601호		Ⅱ 부	오후12시40분 602호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4시	501호		Ⅲ부	오후3시20분
청년1,2부 토요집회	오후 5시	603, 601호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2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802호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9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3호	소요리문답 Ⅰ · Ⅱ부		오전10시, 12시40분 801호601호
			신앙강좌 Ⅰ · Ⅱ부		오후 12시40분 904·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목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전도사 지혜영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lich
 교육목사 임규현 김안성 이종진 교양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영한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선 교 사 김아름·주한나, 이시라, 권요셉·조에스타,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재성,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리, 조남해,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정상진·홍성임
 (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길·홍미영(말레이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서·현해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정범·한미순(일본), 김병강·최시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김태식, 윤왕모, 추수호, 노신애, 이금순, 강명일, 김덕수(군산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Steven Martinolich

11:20 a.m
Westminster Hall
Please stand

Prelude	Organist
Call to worship Psalm 39:4,6	Presider
Invocation	Presider
* Hymn 2(6)	Congregation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Responsive Reading No.26	Congregation
* Doxology 1(1)	Congregation
Prayer	Elder Kwan Kyu Lee
Hymn 380(424)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Revelation 3:17-22	Presider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634(7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acher
Anthem Hear us, O Father	Jerusalem Choir
Welcome to Newcomers	Congregation
Member' s Fellowship	Congregation
Sermon Christ Rebukes, Reveals, Revives- Part II	Rev. Steven Martinolich
* Hymn 532(323)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Christ Rebukes, Reveals, Revives- Part II

Revelation 3:17-22

Summary of the sermon

Previously Jesus just finished rebuking the Laodicea Church and us today, and now He reveals and revives.

First the Lord Jesus reveals. He reveals that wealth and being in a position of not needing anything, leaves His Church lukewarm. We the Church have put our hope in our wealth, success, and status, and strayed far from God. We the Church have little need, and so are unable to know we need our God. We fail to truly see ourselves standing before the Lord. We think we are comfortable and blessed, but we are wretched, pitiful, poor, blind, and naked.

Second, the Lord Jesus revives. He brings us back to His love for us, so we both recognize it and remember our dire need of it. He also shows us His grace and mercy, for when we should be destroyed, He instead convicts us and changes us. He also empowers us with a zeal to give ourselves to Him, and repentance to continuously turn to Him.

Third, the Lord Jesus reveals us that our Christian walk is one that is continuously revealed and revived. This is what it means to conquer as He has conquered. To walk in constantly awareness of our standing with God, and to exist moment by moment in His love, grace, mercy, zeal, and repentance.

But we must open the door, for Jesus stands at the door and knocks. It is up to us. The door handle is on our side. He provided the door, He has stood there from the beginning, but it is up to us to open it. Let the Lord's word of 'only those who conquer' move us always in the right direction, to our Lord and Savior King.

Announcement

- Welcome to our worship!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 Bible study is after fellowship so please join so we can together dig deeper into the mighty word of God.
- We are asking for volunteers to serve as ushers, choir members, teachers, website, pamphlet making, and other church events.
- Our Wednesday Night Bible Study is from 8:30-10:00 in Room 603. We are studying the Book of Jame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찬 양 예 배

-청년부 연합 헌신예배-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박광일 목사	박광일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유문건 목사	조정식 장로
III	오후 2시	박진아 목사	신용식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부름 Call to Worship ...사39:23-2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1,3부(삼계편) ... 다 합 께			
2부 60(사편139편)			
* 송 영 Doxology 1(1)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586(521).....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25:14-30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헌금, 구제헌금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우리들의 STORY" ... 박노철 목사			
(What is your STORY?)			
* 찬 송 Hymn 597(378)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오후 5시 · 인도:최진경 청초부회장 · 설교: 박노철목사

묵 도		다 합 께
성 시	고전 12:13.....	인 도 자
찬 송	585(384).....	다 합 께
기 도		이주환청초부회장
찬 송	299(418).....	다 합 께
성 경	고전 12:3-11.....	유영환청초부회장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성령께서 주신 선물들".....	설 교 자
* 찬 송	196(174).....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은사발견세미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 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남순덕 권사, II부: 박우옥 권사
성 경	 마 5:43-4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 설 교 자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한현숙 · 홍혜란 · 김양언

설 교 박노철, 정수길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20분

본당 2층

설 교 박노철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내 평생에 가는 길	Sonja Poorman	유태왕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II부	랄렐루야	영원한 주의 사랑	James Mountain	고성진	김현정	김양언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Mark Hayes	류총기	강민정1	양경실	윤중현1
찬양예배	청 년 부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김기영	최유현	오신옥	김양언	
영어예배	예루살렘	Hear us, O Father	Don Besig	심상희	최수환	이승민1	
수요 I부	은 빛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박태경	김윤지2	홍혜란	
수요 II부	시 은	주님을 찬양하라	Armin L. Fruer	백경화	김진형	서유진	

(헌금송)

I부	가브리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Allen Pote	유태왕	차주연	조현정	
II부	박나에	시편23편	노용진			김양언	
III부	아멘관현악단	Breathe on me, Breath of God	Robert Jackson	임범창			

뒷면에서 계속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유양열	8교구	리브가	임명숙/조희	박은영	15-8	청년1부	전하미/유복자	조성아	9-9	청년2부	본인
김영예	2교구	에스터	본인	김일두	8교구	청년2부	김민선	유재란	11교구	대학부	임명숙/한민아
류근숙	13교구	보보	최정옥/노정숙/백미경	권희원	7교구	신혼가정부	본인	허정원	7교구	유치부	박공순
이희덕	14-20	안드레	김수진/위성남/재영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면에서 계속

8.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9. 의료 상담 / 하인선(신경외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9759-2299

📌 결 혼

1. 송호연 군(청년부, 송선규 성도 김정선 집사의 장남)과 이재원 양(이병식 김형 씨의 장녀) /

11월5일(토) 오후1시 서울교회

2. 김흥기 군(8교구 김광욱 집사 서영희 권사의 장남)과 이새롬 양(이홍원 조영숙 씨의 장녀) /

11월5일(토) 오후3시 강남SC컨벤션 지하1층 국제회의장(02-569-7600)

📌 장례

1. 故 손성운 집사(6교구 김숙자 권사 부군, 손지희 손영희 집사 부친, 옥중호 한상욱 집사 장인) /

25일(화) 별세, 27일(목) 천국환송예배



신앙 곡선

직선만 긋고 살 수 있는 인생이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세상에서 곡선을 그릴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곡선의 방향만은 계속 하나의 궤도를 향해 전진하고 상승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지금은 그 끝에 매우 가깝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끝을 생각하고 그 종말로부터 현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 그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어차피 지나가 버릴 인생 게임에서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은 그 끝 바로 뒤에 오는 영원한 나라로 바라보고 살게 된다. 즉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정해진 삶이란 가는 길이 혹 평탄치 못하고 때로는 구부러진 길로 들어서기도 하지만 인내와 절제와 소망을 갖고 달려감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이종윤 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절 약	방울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